

KIA새 외국인 투수 멩덴 “구속 회복 자신”

멩덴 “선발 보직 보장 만족스럽고 기회 잘 살려”

터커 “1루수, 어색함 없어 부족한 부분 집중해”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다니엘 멩덴과 3년째 KIA에서 뛰는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가 2021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드러냈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멩덴과 터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구단이 마련한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뛰며 통산 17승을 거둔 멩덴은 지난해 12월 KIA와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42만5000달러, 옵션 27만5000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KBO리그 데뷔를 앞둔 멩덴은 “맷 윌리엄스 감독님과 오를랜드 에슬레티스에서 코치와 선수로 2년간 함께 뛰며 친분이 있었다. 애런 브룩스와 도 한 팀에서 같이 뛰었고, 터커 역시 휴스턴 에스트로스에서 동료였다”며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편함을 느꼈다”고 KIA행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KIA와 계약을 전후해 윌리엄스 감독과 자주 연락했다는 멩덴은 “윌리엄스 감독이 KBO에서 뛰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멩덴은 “미국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보직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선발 보직을 보장받아 만족스럽다. 기회를

잘 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팔꿈치 수술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2020시즌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멩덴은 “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다. 어깨와 팔꿈치 모두 최상의 상태”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메이저리그 개막이 늦어져 재활 시간은 충분했다. 시즌 막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 확진이라 몸 상태에 이상은 없었다”며 “구축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좋았던 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자신감을 보였다.

멩덴은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공격적인 투구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고, 팀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투수가 되고 싶다”며 “슬라이더와 컷 패스트볼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KBO리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구단에서 마련해 준 전력분석 자료를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시절부터 컷수업을 길러 현재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설명한 멩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좋아해준다. 이제 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다시 컷수업을 기르는 상태다. 시즌에 들어가면 기대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프레스턴 터커(사진 왼쪽)와 다니엘 멩덴. (사진 =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두 시즌 동안 KIA에서 뛰며 간판 타자로 우뚝 선 터커는 “이미 적응한 팀에서 동료들과 뛰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팀이 발전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더욱 만족한다”며 “젊은 선수들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팀도 강해지고 있다. 우승할 수 있는 팀의 모습에서 겨우 몇 조각의 퍼즐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팀 전력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터커는 윌리엄스 감독의 요청에 따라 올 시즌 1루수로 뛰기 위해 준비했다.

터커는 “감독님은 내가 1루수를 맡으면 경기에 따라 상대 투수에 강한 외야수를 쓸 수 있고, 전술적 유연함을 가지게 된다며 지난 시즌 중 1루수

로 뛸 수 있냐고 물었다”며 “당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비시즌 동안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떠올렸다.

대학 2학년까지 1루수로 뛰었다고 소개한 터커는 “어색함은 없다. 당시 경험을 되살려 부족한 부분에 집중했다”며 “뭉툰지와 위치 선정 부분을 신경써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터커는 “전반적으로 모든 기록의 수치가 지난해보다 향상되는 것이 목표”라며 “내 성적의 모든 부분이 고무 좋아진다면 팀도 포스트시즌 진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선욱기자

스노보드 클로이 김, 2년 만에 나선 월드컵서 우승

미국 교포 클로이 김(21)이 약 2년 만에 출전한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클로이 김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20~2021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89.7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재미 한인 2세인 클로이 김은 어릴 때부터 스노보드 천재로 통했다. 2016년 여자 선수 최초로 2연속 1080도 회전 성공한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 올림픽 실상 종목 여자 최연소 우승 기록(17시296일)을 세웠다.

2019년 2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클로이 김은 발목 부상으로 2018~2019시즌을 접었고, 2019~2020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클로이 김이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예선에서 94점을 받아 24명 중 1위로 결선에 진출한 클로이 김은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는 바람



에 6명 가운데 5위에 그쳤다. 그러나 2차 시기에서 프러트 사이드 1080도에 성공하며 1위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 사이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무척 긴장됐다. 하지만 코치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며 “2차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마지막에 제대로 착지하는 것이 중요해져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노 미츠키가 76.50점으로 2위, 도미타 세나가 75.75점으로 3위에 자리했다.

남자부에서는 도츠카 유토(일본)가 95.25점을 획득해 우승했고, 스코티 제임스(호주)가 93.75점으로 준우승했다.

뉴스시

봅슬레이 원윤중·서영우, 시즌 첫 월드컵 2인승서 9위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중(36·강원도청)과 서영우(30·경기연맹)가 2020~2021시즌 첫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대회에서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파일럿 원윤중과 브레이크맨 서영우는 23일(한국시간) 독일 쾨니히스체에서 열린 2020~2021 IBSF 월드컵 7차 대회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0초11을 기록해 9위에 올랐다.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기격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월드컵 1~6차 대회에 불참하면서 원윤중과 서영우는 이날 11개월 만에 실전을 치렀다.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원윤중과 서영우는 10위 내에 이

름을 올리며 기본종계 시즌을 시작했다. 1차 시기에서 3위에 해당하는 4초93으로 스타트를 끊은 원윤중·서영우는 레이스 중반 이후 기록이 처지면서 11위(50초08)로 레이스를 마쳤다.

원윤중·서영우는 2차 시기에서도 스타트 기록이 4초93으로 3위였다. 2차 시기에서는 1차 시기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레이스 막판 가속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50초03을 기록, 순위 9위까지 끌어올렸다.

함께 출전한 석영진(31·장기건(34·이상 강원도청)은 1·2차 시기 합계 1분40초92를 기록해 19위에 머물렀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모노봅(1인승) 월드컵시리즈에 나선 김유란(29·강원도청)은 1·2차 시기 합계 1분47초68을 기록해 15명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뉴스시

남농구 김상식 감독·추일승 경향위원장 동반 사의

국가대표 선발 후폭풍에 책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의 김상식(53) 감독과 국가대표 선발-운영을 이끄는 추일승(58) 대한민국농구협회 산하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경향위)이 동반 사임 의사를 밝혔다.

24일 농구계에 따르면, 김 감독과 추 위원장은 다음달 18일부터 22일 까지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일정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대표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팀당 1명을 선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일부 구단과 감독이 전력누수에 대한 형평성을 운운하며 반발하자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필리핀 원정 이후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 격리 2주의 영향이 크다. 구단들은 휴식이 이후 2주 격리에 돌입하면 주축 선수들이 전력에서 이탈, 차질을 빚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를 감안한 김 감독과 경향위는 특정 구단에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를 방향을 잡았다. 프로 팀당 1명을 선발하고, 상무 소속 강상재와 고교생 여준석(용산고)을 선발한 배경이다. 12명 전원을 상무와 대학 선수로 꾸리는 것도 고려했지만 여러 방안 중 하나였을 뿐이다.

김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은 최우선으로 가장 강한 전력을 구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나와 경향위원들 모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해를 불러들였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구단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나 일부에서 경향위가 프로 구단이



김상식 감독



추일승 경향위원장

나 선수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선발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10개 구단 사무국은 이번 선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경향위 측에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장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오갔지만 팀별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기 어려웠다. 국가대표 후보가 다수인 전주 KCC, 부산 KT, 고양 오리온 등과 그렇지 않은 서울 삼성, 창원 LG 등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구단간 감정 싸움으로 변질 수 있었기에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라건아, 이정현, 송교창(이상 KCC), 허훈, 양홍석(이상 KT), 이대성, 이승현(이상 오리온)은 유력한 승선 후보로 거론됐다. 시기에 따라 팀당 1명 선발은 경향위가 세 팀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회와 경향위는 대표팀 선발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다. KBL과 구단은 일반적인 협조와 의견 제시 외에 개입할 수 없다.

구단들이 제각각 경향위 측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면 이는 청탁 성격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

“김상식 감독에게 사과하고 싶다”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권한이 없는 KBL 인사 몇몇이 주축으로 꾸린

명단을 불편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그 흥행 때문이다. 운영 주체인 협회마저 애매한 자세를 취하면서 김 감독을 비롯한 경향위가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명단 확정 이후 하루 동안 발표를 보류하고, 다시 협회와 KBL의 고위층이 자리한 것도 이때문이다.

현직 감독의 공식적인 불만 토로는 신뢰에 금이 가게 했고, 결국 김 감독의 사임과 경향위의 외해로 이어졌다.

강준준 오리온 감독은 명단을 확인한 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설명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김 감독과 경향위를 겨냥했다.

해당 발언의 배경을 묻자 “나는 구단들의 공식 입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한 배경을 아예 알지 못했다. 12명 명단을 보고, 이게 모두 A급 선수로 꾸린 게 맞는지 생각했다”며 “발언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김 감독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구단별 선발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전주범과 서울 SK의 안영준에 대한 의견이다. 몇몇 구단이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둘은 부상으로 코트를 밟지 못했다가 최근 정상 훈련을 시작했다. 현 전력에서 큰 비중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져도 현대모비스, SK는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준범은 23일 서울 삼성전에서 복귀했고, 안영준은 조만간 코트를 밟을 예정이다. 대회까지 3주가량 남았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전준범이 이번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그동안 국가대표팀 정규 멤버로 뛰었던 슈터다. 안영준은 포위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단별 1명 선발 원칙을 지키면서 포지션을 감안했다. 공수에서 필요한 선수”라며 “그동안 계속 현장을 찾아 선수들의 회복 정도와 몸 상태, 훈련 과정을 확인했다. 우리가 뒤에서 특정 구단과 뭐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직 감독인 서동철 KT 감독, 이삼범 원주 DB 감독이 강화위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상황에서 특정 구단을 특히 배려하는 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추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선발에 대해 후회는 없다. 양심에도 떳떳하다”며 “김 감독이 마지막까지 소신껏 지휘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에서 비난하고, 뒤에서 청탁

강상재, 여준석을 포함해 10개 구단별로 라건아(KCC), 김종규(DB), 이관희(삼성), 안영준(SK), 변준형(인삼공사), 김시래(LG), 전준범(현대모비스), 김낙현(전지랜드), 허훈(KT), 이승현(오리온)이 12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컵 예선은 원래 홈앤드어웨이로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장소에 모여서 치르는 식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코로나19 우려로 지난해 11월 바레인에서 열린 예선에 출전하지 않았다가 최근 FIBA로부터 벌금 2억원 및 승점 2점 감점 징계를 받았다. 2월 대회에 출전하면 징계는 절반으로 삭감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 한 조에 속했다. 2위 이내에 들어 본선에 갈 수 있고, 월드컵 출전권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전북 ‘조언자’ 박지성, 전지훈련지서 선수단과 첫 만남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어드바이저(이하 위원)’로 K리그에 입성한 박지성(40)이 남해 전지훈련지를 찾아 선수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전북은 23일 “박 위원이 22일 동계 전지훈련장인 남해 스포츠파크를 찾아 선수단과 상견례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선수단과 이틀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전북 구단 어드바이저로

위촉된 박지성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22일엔 남해로 내려가 김상식 감독 및 선수단과 인사를 나눴다.

전북 구단이 공개한 영상에서 박 위원은 현역 시절 대표팀에서 함께 했던 김 감독을 비롯해 김두현 수석코치, 이운재 골키퍼 코치와 주역 인사를 하며 반가워했다.

박 위원은 선수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북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 문제가 있거나 고민, 상담할 일이 있어 연락을 주면 내가 가진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과 선수단 훈련을 지켜본 박 위원은 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김보경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전북 조언자로 행정이 업무를 시작한 박 위원은 구단에 선진 유소년 시스템을 접목하고, 선수 이적과 영입 등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도 겸할 계획이다.

뉴스시